

테마칼럼

남도의 개발

도시와 원

건강과 생활

일자리와 일자리

복팔부(腹八部)



최명순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하의 쓰임새가 기다리고 있는 법” - 절제(節制)하는 생활로 성공하는 삶을 준비하고, 경인년 새해를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하겠다.

”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즐겨 토정비결이나 새해 운세 등을 보곤 한다. 과연 운명은 실제 있으며, 또 성공하는 운명은 따로 있는 것일까? 200년 전에 살았던 일본의 전설적인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인 '미즈노 남보쿠'에게서 그 해답을 구한다.

남보쿠는 국가로부터 대일본(大日本), 일본중조(日本中祖)라는 칭호까지 받았던 사람으로, 일곱만 보고도 다른 사람의 운명을 단 한번의 실수 없이 맞췄다고 한다. 모든 자연 현상이나 인간사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 없다고 믿는 운명론(宿命論)에 대하여 그는 그의 저서 '절제의 성공학'에서, “누구의 운명이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련과 절제를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하고 고쳐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운명은 살아있어서, 좋은 운명을 타고 났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나쁘게 바뀌게 되며,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하는 것이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심신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노예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이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가는 자기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한 말과 그 맥(脈)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절제(自己節制)'이다. 특히,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수명과 함께 일생동안 먹을 양의 음식을 타고났으며, 이를 천복(天賦)이라고 하여 과식이나 폭식을 하여 이 천복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

할 수 없으며, 단명(短命)하게 되고, 이를 절제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식생활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다. 재물이나 운명까지도 식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식사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며 식사를 일정한 배에 8할 정도만 채워 먹으면(腹八部)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8(八)'이라고 한다. 2008년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올림픽의 개막일시는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이고, 2004년 쓰촨(四川)항공 주식회사가 경매로 구입한 사무실 전화번호 '8888-8888'은 261만 위안(약 3억1565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이처럼 8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8자의 발음 '바'가 '돈을 많이 번다'는 '파다차이(發大財)'의 '파(發)'와 비슷해 재운(財運)을 가져다준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8(八)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라도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성공을 하려면 인간의 체세에서 조식(粗食)하고, 절제(節制)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끊임 없이 추구하고 노력해 나가면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도 절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을 목표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녹색성장은 나 자신은 물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하여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녹색성장이라 해서 나오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고, 승승차 보다 자전거타기, 겨울철 온도 낮추고 스웨터 입

기, 재생 종이 쓰기 등 '나 자신부터, 작은 것부터, 주변에서부터' 찾아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소중히 다루어야만 자신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아껴 쓰는 것이 한 장, 물 한 방울, 전기 한 통이 사실은 회사를 위한 것도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나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자축인 것이다.

금세기가 낳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도 습관처럼 굳은 검소함과 삶에 대한 집중이 최고의 부자로 만든 이유였다고 한다. 워렌 버핏은 검소와 절약을 미덕으로 삼았으며, 어린 시절부터 버핏 집안의 영향으로 체계적이고 익힌 검소한 삶과 절제의 정신이 그의 인생 전반을 지배하며 작동하는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확실한 것은 어떠한 운명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니며 또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자유의지(自由意志)는 강력한 힘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하의 쓰임새가 기다리고 있는 법” - 절제(節制)하는 생활로 성공하는 삶을 준비하고, 경인년 새해를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힘차게 열어나가 하겠다. <건강보합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정세완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호랑이띠로서 60년 만에 맞이하는 백호의 해이다. 백호는 사장신의 하나로 우백호로서 활동하는 신이다. 백호는 표호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의 왕이며 용기와 결단력의 상징하며 지배의 동물이다. 새해 호랑이 띠 출신율이 높다고 한다. 호랑이 띠 사람은 다른 심이 간지 띠보다 출세와 권력이 가까이 있음은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과 부패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마치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늘이 짙은 것처럼 말이다. 돈이 좋지만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이 돈을

다. 서양의 나폴레옹이 대표적인 용장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용장보다 격이 높은 것이 덕장이다. 유비현덕 같은 덕장을 제일로 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배려와 헌신이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속담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뼈, 가죽, 등 푼까지도 약재로 활용한다. 인간들은 용장인 호랑이를 죽여서 자신의 육신 전부를 기증하는 덕장으로 만들었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는 신년을 당하여 선연의 시 한편을 소개해 주

백호의 용기에는 책임이 따른다

많이 가지면 그 돈은 폐가방신의 주범이 된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상해하게 되고 성인 요리사가 칼을 잡으면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이 된다. 돈과 명예와 모든 재물은 내가 잠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용하다가 가는 도구이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권력이 삶의 지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삶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뿐더러 전도된 삶을 살게 된다. 호랑이의 용기와 결단 뒤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호랑이는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산 새끼만 키운다고 한다. 호랑이도 책임을 지는 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호랑이 띠 자식만 낳을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면서 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이 손해 보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 호랑이 같은 지도자를 용장이라고 한

기를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處世乘爲貴)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剛強是禍基).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發言常欲訥) 일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행하라(臨事當如痴)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急地尙思緩) 편안할 때 위태할 것 잊지 말라(安時不忘危). 일생을 이글대며 살아간다면(一生從此計) 그 사람이 참으로 대장부니라(眞個好男兒).”라는 내용이다. 새해 벽두에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의 마음으로 새롭게 새해를 설계하자.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애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열린 마음, 유한 마음으로 천하를 관망한 삼고 우주를 한 가쪽으로 생각하며 새해를 맞이하자.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 사무국장>

외국인 노동자들에 욕설·폭력... 타국살이 상처 줘서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여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우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이들의 인권과 대우는 열악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이들에 대한 반말과 욕설 같은 언어 폭력, 그리고 부당한 대우라 할 수 있다. 한 중국인 동포는 “사장이 우리더러 조선족이라고 불려요. 그러다가 일을 좀 잘하

고 맘에 들면 그런 때만 동포라고 부릅니다.”라며 서운해 했다. 심지어 조금만 맘에 안들어도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욕박지를 때는 인간이기 싫어질 정도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바른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한국 사회, 인간다운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했으면 좋겠다. ▲전연희·광주시 동구 총장로 2가

기고

오덕렬



지난 선달 30일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법안심사소위의 지방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 요지는 교육감과 교육위원(教育委員)의 임무보 요건에서 교육경력 규정을 없애고, 후보자의 당적보유 금지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 선거가 아닌 정당 추천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이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교육계의 염원인 교육위원회의 실질

이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백년대계를 바탕으로 깔고 어떻게 하면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야 할 텐데... 21세기는 전문화 시대다. 교육도 더 전문화되어야 하겠다, 교육 본질을 살리면서, 토폰리의 '부의 미래'에서 보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의 부(富)를 좌우한다고 했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기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교육이 사는 길이니 나라가 잘 되는 일이 아닐까. 교육을 잘 알고

교육자치 법률 개정에 거는 기대

적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의면한 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통합되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교육·학예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2010년 7월 이후부터 일원화하려 한 것이다. 교육계 쪽에서 보면 앞선 데 맞춘 격이고, 일반행정 쪽에서 보면 효율성과 경제성을 살렸다고나 할까.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각 분야에서 창의 모든는 교육과정이 잘 짜여 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지를 살펴보면서 도와야 할 것이다. MB정권 초기에 '영어몰입교육' 문제로 전국이 한바탕 들끓었던 때가 있었다. 국어교육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훈(魂)이 스며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광주시 문인협회장>

소신과 의욕을 갖춘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으로 되고 교육위원도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정범모 교수는 한국의 세 번째 기적을 '자율 사회의 실현'이라고 했다.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평화적 정권교체 다음으로 우리의 기적을 자율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자율의 신장이 '중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이 '선진'으로 진입하는 데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급한 것은 교육자의 전문적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교육자치는 교육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 이제 종적으로 분야분권(分野分權)을 강화할 때가 아닐까. 특히 교육분권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큰 길인 것 같다. 이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시 문인협회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실효성있는 '지방 지원책' 내놓아야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지방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가 기업과 연구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지방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광주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LED, 신재생에너지 등 세종시 수정안의 상당 부분이 광주·전남지역 미래 주력사업과 중복돼 시·도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자신의 거주지역이 손해 볼 가능성을 묻는 한 설문조사 결과 광주시민의 절반 이상이 “손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 지원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국 각 지역·기업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원형지는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만

끝낸 땅을 사업자에게 넘겨 사업자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이미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돼 원형지 공급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나주혁신도시 토지 매입가격이 3.3㎡당 40~45만원으로 세종시의 36~40만원보다 높게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입지조건 등을 감안하면 원형지 공급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이 무너져 도시개발 정책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도 있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을 내놓거나 다른 지방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만 쏟아내는 한 세종시 문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피해가 불가피한 지방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권과 충청권 민선국회 혁신·기업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원형지는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만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라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자리 창출'이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올해 매출 신인사원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해 256개사의 채용 예정인원은 1만6천84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채용한 1만7천851명보다 5.6% 줄어든 것이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줄이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내 고용시장은 '일자리 빙하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포 열어붙었다. 지난해 11월 현재 이렇듯이 늘고 있는 인구가 350만명에 달해 사실상 실업률은 12.3%나 된다. 8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는 셈이다.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취업자는 7만2천명이거나 감소해 11년래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

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 및 산업구조는 고용률이 60%를 상시적으로 밑도는 사실상 '고용 없는 성장'형으로 바뀌었다. 민간 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용 문제는 기업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삼성 등 국내 대기업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딛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올해 역시 기업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일자리 만들기 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매출이 증대하면 만큼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일자리 만들 기야말로 최상의 사회적 환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無等鼓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회 의료선교사 호러스 알렌이 제주포에 도착했다. 그는 입국하자마자 진료를 시작했고 그가 선보인 '서양 주술'은 당시 조선 백성들에게는 무섭고 신기할 따름이었다. 감시정변이 일어나고 민비의 조카이자 실력자인 민영익이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 때 알렌의 의술이 빛을 발한다. 몇 차례의 치료로 완쾌되자 민영익은 신기한 의술에 매료돼

그는 처음부터 한문을 청기려고 조선에 입국했고, 제중원 설립 이후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탈을 대변하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알렌은 이후 1895년에는 운산금광 채굴권을 직접 따내 미국의 사업가들에게 넘긴다. 그는 또 아관파천을 주선해 경인철도 부설권을 따냈고, 이를 두 달만에 일본에 넘기면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200만 원의 차익을 챙

호러스 알렌



첫 서양식 병원 설립을 고종에 건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서울대병원이고 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이자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국립 의료기관인 광혜원(1885년 4월 10일 개원)이다. 이후 광혜원은 개원 12일 만에

200만 원의 차익을 챙긴다. 1907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나라 빛이 130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알렌에 의해 유출된 200만 원이라는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최근 SBS가 새해를 맞아 야심 차게 준비한 월화 드라마 '제중

원'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지난해 MBC드라마 '선덕여왕'은 방영되는 동안 역사왜곡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제중원'같은 근대사라면 그 논쟁은 첨예해질 우려가 크다. 드라마에서 알렌은 서양의학의 선구자로서 미화한다면 또 역사 왜곡 논쟁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김일환 여론매체 부장 kih8@

알렌은 초대원장으로서 직접 환자를 치료해 조선에 서양의학술을 도입한 선구자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최근 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가 미국의 제국주의 침탈에 앞장 선 최초의 인물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 부 2200-641 체육 팀 2200-66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500>
D 자 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